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黃南逸* · 高勇夫**

目 次

- I. 序 說
- II. 地域化의 圈域別 實態比較
- III. 結 論

I. 序 說

오늘날 世界經濟가 汎世界主義의 複雜와 지역주의의 심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集團的 保護主義가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를 대별하면 유럽권, 북미권, 개도국권, 동북아권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EC는 1987년에 발표된 단일유럽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였던 각국장벽을 1992년 말까지 제거하여 명실공히 상품, 자본, 노동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單一유럽市場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건설함으로서 미·일에 비해 낙후된 EC經濟를 재활성화시키고 과거에 누렸던 유럽의 世界中心的地位를 復元하고자 하고 있다.

EC는 域內市場 완성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접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유럽廣域經濟圈 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오는 93년 1월부

* 本 研究所 研究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圓光大學校 商業教育學科 助教授

產業研究

터 유럽自由貿易과 유럽經濟地域(EEA)을 형성키로 합의하여 놓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北美圈은 美國을 중심으로 地域主義化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1988년 카나다와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와는 FTA체결 협상을 추진하는 등 北美自由貿易圈(NAFTA)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요 무역상대국들과도 FTA의 체결을 확대할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개도국권의 경우를 보면¹⁾ 가장 먼저 지역적 통합의 노력이 나타난 곳은 전통적인 수출시장이던 EEC의 차별정책과 EEC 아프리카간 준회원국 협정의 체결 등에 자극을 받은 중남미 지역이다. 여기에는 共同市場을 목표로한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LAIA)과 경제동맹을 목표로한 안데안 共同市場(Andean Common Market)과 중남미 共同市場(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카브리해국가들 간에는 共同市場 형태의 CARICOM(Caribbean Common Market)이 있으며, 1991년 3월 南美共同市場(MERCOSUR)4개국, 즉 브라질, 알젠틴,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등 Asuncion 협정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중앙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UDEAC),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및 ECOWAS 내에 佛語사용국가들로만 구성된 CEAO과 아랍共同市場(ACM)이 결성되어 있으며, CEPGL(大潮제국 경제 공동체), PTA(동남북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 SACUC(남부아프리카 개발 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관세동맹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60년대 후반 태국, 인도 등 5개국이 특혜지역을 구성하는 방콕협정을 체결함으로서 ASEAN이 결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미·일간의 FTA체결을 추진하려는 쌍무주의적 통상압력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산성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인 결속을 위하여 自由貿易地域 構想을 추진중에 있다. 이 구상에는 특혜관세제도의 확대, 20억 달러의 아세안·日本開發基金 活用에 의한 공업화와 국제분업의 추진,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공동 기반 조성, 太平洋 石炭프로그램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地域主義化 傾向을 地域別·時代別로 보면 아래의 〈표-1〉과 같이 60년대 10개,

1) UNCTAD Secretarial, Index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grouping of developing Countries membership and objectives United Nations, TD. BC 7 AC 33 Rev1(December 1990), pp. 1-7.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70년대 18개, 그리고 80년대 이래 29개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²⁾

〈表-1〉 世界의 地域主義化 推移

地域 / 年次	1960年代	1970年代	1980-90年代
유럽	EEA (6) EFTA (7) NC (5)	EC (6) EFTA (8) NC(5)	EC (12) EFTA (6) NC (5) EEA (19)
中南美	ANCOM (5) CACM (5)	LAFTA (11) ANCOM (5) CACM (5) CARICOM (13)	LAIA (11) ANCOM (5) CACM (5) CARICOM (12) ABUR (3) MERCOSUR (4)
아세아		ASEAN (5) RCD (3)	ASEAN (6) RCD (3) SAARC (7) GCC (6)
아프리카	SACU (4) CE (4) UDEAO (7) UDE (4)	ACM (4) CPCM (3) SACU (4) CE (5) UDEAO (7) ECOWAS (16) UDEAC (4) EAC (3)	ACM (4) CPCM (3) SACU (4) CE (5) CEAO (7) ECOWAS (16) UDEAC (4) CEPGL (3) PTA (15) SADCC (9)
오세아니아			SPF (13)
東歐	COMECON (8)	COMECON (8)	COMECON (10)
北美			美·加間FTA(2) 美·加·멕시코FTA(3) 美·이스라엘間FTA(2)
機構數	10	18	29

資料：國際體制研究會，國際新秩序形成と地域主義，世界經濟情報센터，一ヒス(ワイズ)，1986，P.73을
参照하여 再作成。

2) 지역주의에 대한 GATT의 입장은 다양한 경제로 구성된 현 국제경제에 있어서 국제거래의 확대와 자유화가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는 일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產 業 研 究

이들 地域主義의 集團化의 경향을 유럽圈, 北美圈, 中南美,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開途國圈과 일본을 중심으로 構想中인 東北亞圈으로 나누어 背景 및 目的, 性格 및 理念, 內容, 期待效果 및 展望으로 類型化하여 이들을 비교하여 본다.

II. 地域化的 圈域別 實態比較

1. 背景 및 目的

1) 유럽圈

유럽統合의 構想은 1, 2차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 경제적 통합은 2차대전 이후의 베네룩스 관세동맹(47년 10월)과 OEEC에서 비롯되며, 특히 후자가 EEC와 EFTA로 분리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³⁾

먼저 EEC의 경우 본격적인 發端은 슈만플랜(Schuman Plan)⁴⁾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안은 1950년 프랑스外相 Suhman이 서독과 프랑스의 石炭 및 鐵鋼의 生產을 유럽제국이 함께 참가하는 最高機關에서 管理하자는 것이었으나 이에 영국은 주권의 제약을 이유로 北歐와 그 밖의 中立國家는 政治統合을前提한 것임을 들어 참가를 거부하였다.

결국 1951년 4월에 서독, 프랑스, 이태리 등 6개국만으로 유럽 石炭, 鐵鋼共同體(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결성하고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ECSC의 創設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유럽에서 近代以後 팽배하게 된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옛날의 통일성을 회복함으로서 세계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되찾자는 유럽공동의식의 면면한 흐름이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에서 소련 및 동국의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키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誘導支援이었다.

3) Dennis Swan, The European of the Common market, (G B.; Penguin Books Ltd., 1975), pp.10-25.

4) 불란서 외상 슈만은 1950년 5월 9일 戰後 구라파경제회복과 세계평화는 歐洲諸國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巨視的觀點에서 歐洲經濟統合計劃을 선언하고 있는데, 제1단계로 불독의 石炭・鐵鋼의 공동생산계획을 제안했다.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이어 1957년 3월 原子力共同體(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와 함께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조인함으로서 유럽경제공동체가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까지 역내 무역장벽의 완전철폐를 목표로 하는 ‘유럽단일화법’ 및 EC, EFTA 間 歐洲經濟領域(EEA)의 구축 등을 통해 구주의 통합목표를 성숙시켜가고 있다.⁵⁾ 60년대 말까지 급진전을 보여 온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이 70년대 이후의 경제불황에 따라 踏步狀態에 머물고 있고, 60년대의 이른바 ‘미국의挑戰(Le Défi American)⁶⁾에 이어 70년대 일본 및 아시아 NICs의 域內市場 침투로 역내산업경쟁력이 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그대로 두면 21세기 初頭에는 二流經濟圈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경제권 형성은 EC경제의 거대한 지역주의적 單一市場의 형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미국, 일본 및 INCs들에 의해 참식당한 EC域內市場을 보호하면서 무역상대국과의 대외경쟁력을 회복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역내기업의 시장영역을 해외로 확대한다는 적극적인 對外擴大政策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강력한 共同體 構想에 대하여 영국은 원칙적으로 국가주권이 구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덴 등은 자국의 중립외교노선에 배치되어 同 構想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영국의 주도하에 보다 구속력이 약한 汎유럽 자유무역권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결국 1960년 1월에 스톡홀름조약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가 1960년 5월 발효되었다.

따라서 EFTA는 歐洲諸國中 비교적 小國인 6開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간 수출관련 쿼터 및 기타 장벽을 撤廢하고 비차별적 무역관행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EFTA는 1973년 EFTA 가맹국인 영국과 덴마크의 EC가입과 잔여 EFTA제국과 EEC와의 自由貿易協定締結 및 최근의 EEA 결성 등으로 사실상 EEC의 무역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⁷⁾

5) Arnold M. Z. B., Bronckers M., “The EEC New Trade Policy Instrument some Comment on It's Application”,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88), pp.19–38.

6) 미국의 도전이란 1967년 프랑스인의 Servan Schreiber가 발표한 저서의 제목으로 美國 多국적기업의 대유럽 투자로 고조되는 유럽경제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7) La Banque Bruxelles Lambert, “Les pays de l'AELE face à la cheance 1992”, problemes économiques No 2097. 3(Nov. 1988, paris), p.31.

2) 北美圏

미국은 EC의 경우보다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60년대 중반 이후 북미경제권을 겨냥한 地域主義化 性向을 보여왔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EC의 단일시장 형성을 통한 經濟統合推進에 대한 반작용 및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지위약화와 함께 강한 地域主義化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

즉 미·캐나다간에는 140년부터 이미 政治的·安保的·經濟的 分野에서 부분적 협력⁸⁾이 시작된 이래 미·캐나다間 自動車 自由貿易協定(Auto Pact)⁹⁾이 체결됐고, 1983년에 카리브지역 開發促進策(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을 마련했다. 이어 1985년에 미·이스라엘간 自由貿易協定, 그리고 1988년에는 美·캐나다間의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했다. 현재에도 미·멕시코간 自由貿易協定을 추진중에 있고 기타 ASEAN, 대만, 한국 등과 이를 논의하는 등 최근 미국의 지역주의화 성향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지역주의정책은 기본적으로 GATT 기능의 약화에 따른 다자간협상에의懷疑 증대와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저하에 따른 정책변화에서 비롯된 것¹⁰⁾으로 미국은 정책변화의 실천방안으로 ①비관세부문에서의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부터의 후퇴, ②외국 수입품과의 경쟁·문제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방식으로 쌍무적 시장질서유지협정, 수출자율규제 선호, ③미국이 대우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상호주의 강화와 함께 ④양국간 부문별 포괄적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은 GATT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통상정책의 軸으로 하면서도 일부 특정국과는 FTA협정을 통해 이국간주의를 병용하는 소위 'GATT플러스方式'¹¹⁾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자유무역화가 진전된 특정국간에 FTA를 체결하고 여기에 여타국이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데 그 논리적

8) 1941년에는 Defence Production Sharing Agreement가, 1944년에는 Farm Equipment Pact가 이루어졌다.

9) C. F. Bergsten, "America's Unilateralism", Conditions for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Economic Management, The Triangle paper:32, A Task Force Report to the Triangle Commission, (1986), pp.3-11.

10) GATT Plus 방식이란 기존 GATT체제가 구성원들의 다양성,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노출시킴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GATT規範에 또하나의 의제를 가시화(예컨대, 농산물 교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등) 하려는 협상전략의 일종이다.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근거를 두고 있다.¹¹⁾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동안 미국이 주장하여 온 自由公正貿易에 기초한相互主義가 그 실효성에 비해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등 역작용이 커짐에 따라 자유무역권 형성을 통해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우루구아이라운드 및 그 政策協調 促進手段으로서 활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아시아・太平洋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력 향상과 상호의존성의 증대, 그리고 세계경제의 다극화,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지역협력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본, ASEAN 등 서태평양제국에 대한 미국의 自由貿易協定 제안, 일본의 役割分擔論, OECD形態의 정책협의기구 설립 논의 등이 그것이다.¹²⁾ 특히 일본은 戰前의 이른바 大東亞共榮圈 형성이 좌절된 후 60년대 중반부터 다시 일련의 독자적인 태평양경제공동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지역에서의 역할증대 및 경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4년 Kojima(小島清)教授가 太平洋自由貿易地帶(PAFTA; Pacific Free Trade Area)案¹³⁾, 1978년 PAFTA를 수정한 Kojima Drysdale의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案¹⁴⁾, 1980년 環太平洋研究 그룹의 環太平洋連帶(Pacific Basin Coperation Concept)案¹⁵⁾, 그리고 최근의 太平洋 OECD案 등이 구상되었고, 이와 관련한 研究機構로 PAFTAD(太平洋貿易開發會議), PBED(太平洋經濟協會), PECC(太平洋經濟協力會議)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아시아・太平洋地域 經濟統合構想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시장개방을 통한 수입확

11) Riedel, James, "United States Trade Policy; From Multilateralism to Bilateralism?", in the Herbert Giersch ed., (Free Trade in the World Economy Institute for Werwirtschaft and der University Kiel, 1987), pp.85-104.

12) 趙顯泰, 「日本의 아시아・太平洋構想」, 月刊世界經濟動向, 第2卷 第2號, 產業研究員, 1989. 2.

13) Kiyoshi Kojima and Hiroshi Kurimoto, A Pacific Economic Community and Asia Developing Countries, in Measures for Trade Expansion of Developing Countries, Japan Economic Research Centre, (October 1966), pp. 93-134, Reprinted in Hitotsubashi Jorurnal of Economics, (June 1966), pp.17-37.

14) Kiyoshi Kojima,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A Proposal,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Research Paper,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1976).

Peter Drysdale,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Regional Arrangements and the Resorce Trad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Research Paper, No. 49,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ay 1978).

15) 環太平洋連帶研究, 環太平洋連帶構想, (東京; 環太平洋地帶研究, 東京, 1980)

產 業 研 究

대와 지역국가간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이 아시아·太平洋地域의 국가들과 자유무역권을 형성함으로서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世界經濟內에서 뚜렷한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른 세계경제에서의 고립을 회피하는 한편 미국과의 貿易摩擦의 解消는 물론 이지역에서 보다 많은 貿易利益을 향유하여 일본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構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¹⁶⁾

4) 其他 開途國圈

아시아·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등 개도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경제발전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른 개도국 地域經濟機構는 전술한바와 같이 東南亞의 결프협력위원회(GCC) 등 15개 정도에 달한다. 이 중 ASEAN은 經濟統合機構가 아니고 경제협력기구로서 가장 初步段階인 特惠貿易地帶에 불과하다. 또 1995년 발족 예정으로 남미4개국 보통시장은 共同市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統合機構는 한결같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거나, 中南美地域의 대표적인 통합기구였던 LAFTA의 경우와 같이 목표년도까지 역내 貿易自由化를 달성치 못하고 결국 새로운 統合機構인 LAIA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이들 개도국의 경제통합은 공업화를 기축으로 하는 經濟開發에는 地域的 協力を 목적으로 결성되고 있다.

2. 性格 및 理念

1) 유럽經濟圈

EC는 SNAKE 실시 이전에는 關稅同盟에 生產要所의 域內自由移動이 가능했던 共同市場 이후에는 準經濟同盟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지역화의 대상을 서유럽국가들 내지는 유럽國家에¹⁷⁾ 한정하여 계속 擴大發

16) 全經聯, 「世界經濟의 불특화와 韓國經濟의 進路」, 全經聯, 1989. 6., p.165.

17) Eric G. Friberg, "1992 : Moves European are Making", Harvard Business Review, (Mar.-Jun. 1989) pp. 90-95.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展시키는 이른바 Closed Membership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는 1967년 6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이후 1973년 영국, 덴마크, 에이레의 3국이 1981년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및 포루투갈이 회원국이 됐으며 12개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폐쇄성은 ① 유럽은 하나라는 이념과 ② 規模의 經濟를 통한 자국시장의 보호 및 경제의 再活性화란 經濟的 側面, ③ 對外共同政策을 속성으로 하는 共同市場이라는 통합단계 등에 연유한다.

또한 유럽공동체는 共同市場의 특성상 域外企業에 대해 배타적이며 차별적인 폐쇄성을 가진다. 또한 EC가 競爭的 우위가 있는 高附加製品은 경쟁적 개방체제를 유지한다.

自動車, 家庭用 電子製品 등과 같은 표준화된 양산제품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保護主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략적 동기로 볼 때 EC의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은 취약부문에서 외부경쟁을 방어하고자 하는 守備的 性格을 지니며, 이념상으로도 보호무역주의의 입장에 있다.¹⁸⁾

2) 北美圈

美國이 주도하는 北美圈 형성은 그 결정권은 一方的으로 미국에 귀속하나 어떠한 交易相對國도 協定對象國이 되고 있으므로¹⁹⁾ EC와는 달리 開放性, 즉 Open Membership을 특성으로 한다. 또 미국의 FTA추진은 종래의 通商政策의 기조였던 다자주의의 비실효성에 대한 대체手段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점조직적 또는 별모양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市場自由化클럽(Market Liberalization Club)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²⁰⁾ 따라서 地域主義이 내포하는 지역성이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의 FTA정책은 海外市場을 개방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추진된 것으로 EC와는 달리 攻擊的인 성격을 가진다. 이 FTA정책은 자국이 貿易赤字의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GATT體制의 補完財性 資源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長期戰略, 通商法을 근거로 한 市場開放壓力의 단기적 전략과 함께 自由貿易協定을 통한 실리확보라는 종

18) 金成哲, 「EC市場單一化의 最近動向」, 月刊 世界經濟動向 第6卷 第2號, 產業研究院, 1988, p.81.

19) 洪起穆, 「北美經濟圈 形成과 우리企業의 對應方案」, 月刊 世界經濟動向, 產業研究院, 1991. 9., p.60.

20) 全經聯, 前揭書, p.162.

기적 성격의 전략²¹⁾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²²⁾

3) 아시아 太平洋 經濟圈 및 開途國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은構想案에 따라 日・美・캐나다・韓國・臺灣・ASEAN・호주・뉴질랜드・中國 등 환태평양 국가들을 主對象²³⁾으로 하고 있어서 개방성(open market ship)을 염볼 수 있다. 또 일본의 이러한 구상은 對아시아 FTA정책에 따른 일본영향력의 축소 및 미국블록의 확대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지역기반을 구축, 亞・太平洋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무역이익을 賦有코자 하므로 실리추구적 기회추구의 성격을 가진다.²⁴⁾

한편 개도국의 지역화는 공업화추진 및 지역내 안전보장의 유지가 목적이며 集團自助努力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自救型의 性格을 가진다.²⁵⁾

3. 內 容

1) 유럽經濟圈

EC는 무역 뿐만 아니라 金融・財政 등 經濟全般, 그리고 나아가서는 政治的 結合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통합추진과정을 보면 로마조약에 따라 초기의 관세동맹에서 1970년에는 共同市場,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는 경제동맹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또 1987년부터는 구주통합법에

21) 長期的 戰略은 多者間 貿易協商 推進을 통한 ①世界의 自由貿易 規範確立, ②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緩和, ③農產物에 대한 GATT規程 強化, ④서비스 知的所有權 保護貿易秩序의 確立을, 中期的 戰略은 自由貿易協定(FTA)에 따른 ①점조직적 自由貿易圈의 形成, ②多者主義의 非實效性代替, ③海外市場에의 容易한接近, ④漸進的 市場自由化 클럽(Market Liberalization Club)形成을 그리고 短期的 戰略은 通商法을 根據로한 市場開放壓力 ①不公正 貿易에 대한 制裁조치 및 市場開放壓力, ②換率調整에 의한 貿易赤字 改善을 겨냥하고 있다.

22) 產業研究院,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推移와 우리의 對應」, Issue Paper 89-33, p.11.

23) 外務部, 「亞細亞・太平洋地域協力」, 外務部, 1987, p.8.

24) 李建雨, 前揭論文, p.96.

25) 產業研究院,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推移와 우리의 對應」, p.19.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따라 1992년까지 域內 財貨・サービス・노동 및 자본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적극적 통합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1957년 로마조약의 성격과 크게 다른 점은 경제・통화동맹, 정치・외교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EC회원국이 장차 政治・經濟統合을 통해 미국과 같이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²⁶⁾

EC統合에 따른 域內保護政策²⁷⁾은 ①關稅와 퀴터撤廢의 域內貿易自由化²⁸⁾, ②域外共同關稅, ③生産要素의 自由移動, ④共同農業政策²⁹⁾, ⑤其他(附加稅, 共同變動換率制度 등) 등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域內關稅는 로마조약에 의거 1959년 1월 1일의 10% 관세인하를 시초로 하여 이후 3단계에 걸친 인하를 통하여 1968년에 완성에 이르게 되었으며³⁰⁾ 數量制限도 1961년에 全廢되었다.

域外共同關稅는 1960년 2월 標準貿易分類品目 3,000개에 대하여 195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프랑스・西獨・伊・베네룩스의 품목별 관세율을 算術平均하여 공동관세율을 인하하고 각會員國의 關稅法에 의거 적용토록 한것으로 그때까지의 高關稅國이었던 서독・伊・베네룩스 3국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과정이었다. 그 후 1968년 7월 品目을 3,700개로 확대조정하고 각회원국의 관세법에 의한 공동관세율 적용제도를 폐지하여 EEC 單一關稅率表로서 共同關稅率表(The Communing Customs Tariff)를 제정시행하고 있다.³¹⁾

그러나 당초 EC統合을 가능케 하였던 로마조약은 條約발효 이후 12년 내지 15년 내에 완전한 經濟統合까지를 목적으로 한 單一市場을 완성할 계획이었으나,³²⁾ 관세동맹 결성 외에는 名實相符한 單一市場의 完成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EC執行委員會는 域內市場의 完全統合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1985년 域內市場統合白書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1992년까지 EC市場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

26) 劉承弼, 「EC統合의 擴大論과 深化論」, 月刊世界經濟動向, 第9卷 第9號, 產業研究院, 1991.

27) 로마條約 第3條 參照.

28) El Agraa,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Oxford; Philip Allen, 1980) pp.113-133.

29) Marie Francoise Labouz, Le systeme communautaire euro peen, (paris;Berger-Levrault, 1988) pp. 422-423.

30) 國際經濟研究院, 「地域經濟統合의 趨勢와 展望」, 1977, P.14.

31) 大韓商工會議所, 「世界 主要國의 關稅制度」, 1983, p.132.

32) 로마條約 第30條 參照.

產 業 研 究

는 歐洲統合法(Single European Act)을 제정하였다.³³⁾

統合白書에는 域內 市場統合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장벽을 物理的, 技術的, 財政的 장벽으로 3대별하여 총279개의 추진사항 및 세부일정이 1992년 말까지의 철폐를 계획으로 제시되어³⁴⁾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EC域內市場統合 推進의 주요 내용은 財貨・用役・生產要所의 자유로운 域內移動을 저해하는 기존의 物理的, 技術的 그리고 財政的 障壁의 除去로 요약된다.

① 物理的 障壁은 會員國의 國境을 넘는 모든 재화와 개인에 대한 통제형태의 장벽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EC는 이미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1992년까지 농업, 위생, 수송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책조화는 물론 역내국경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② 기술적 장벽은 회원국이 여타국의 자국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업규격표준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벽을 의미하며, 공동의 공업표준규격의 마련, 공공구매시장의 상호개방,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역내이동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③ 재정적 장벽은 회원국들간의 상이한 간접세 구조로 인한 간접세율 격차의 형태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말하며, 附加價值稅率의 조정 등의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또한 統合白書를 중심으로 한 시장통합추진 이외에도 유럽단일화법을 근거로, 즉 유럽中央銀行(European Central Bank : ECB)設立과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EMS)活性化³⁵⁾, 共同 科學技術 프로젝트 수행, 地域開發基金(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擴大運用 등이 완전한 共同市場의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2) 北美經濟圈

美國의 FTA협정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投資 등의 分野를 포함하나 주로 貿

33) 經濟企劃院, 「EC域內 市場統合279個 課題推進現況」, 經濟企劃院, 1989, pp.338-355.

34) 韓國貿易協會, 「Europe 1992」, 歐洲市場統合推進動向1號, 1990, pp.10-51.

35) Horst Ungerer,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 System,"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27, No. 3(March 1989), pp.231-242.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易自由化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⁶⁾

美·加協定의 경우는 ①대상에 商品購買, 政府購買, 서비스, 投資, 金融서비스制度改善, 制裁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②兩國間 交易商品을 3개군으로 나누어 1998. 1월까지 輸入關稅를 철폐토록 하고, ③自動車 및 商品交易의 自由化範圍擴大 및 외국인 기업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④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투자 등 경제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2국간 協定³⁷⁾보다도 의미가 크다.

한편, 미·이스라엘 FTA 협정은 ①양국간 상품 교역에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되 카테고리 상품은 198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그 카테고리는 10년내 나아가서는 1995년 1월에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서비스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적용하고 있어 美·加 FTA協定의 경우보다 소극적이다.

3) 아시아 太平洋 經濟圈

日本의 아시아·太平洋 自由貿易圈 形成은 아직 構想段階이므로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특히 15~20여개의 暫定會員國間의 廣範圍한 경제적 격차와 利害相沖, 이 地域國家間의 政治的 力學關係 등이 향후 亞·太平洋 自由貿易圈 形成의 관건이 될 것이나, 현재의 동향으로 볼 때는 기능적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유무역권 형성을 위한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³⁸⁾

4) 開途國圈

開途國圈 經濟統合體中 ASEN은 特惠貿易地帶로 初期段階이고, LAIA는 自由貿易地域으로 분류되며 ANCOM, CACM, CARICOM, ECOWAS, CEAO, SADCC 등은 關稅同盟으로 분류되고³⁹⁾, 그리고 1991년 아순시온協定으로 출발한 남미 4국은 共同市場을 표방, 대외공통관세

36) 李建雨, 前揭論文, P.96.

37) 韓國貿易協會, 「美國의 自由貿易形成과 우리의 對應」, 韓國貿易協會, 1989.4., P.43.

38) 新韓綜合研究所, 「東아시아 經濟區域化 論議와 韓國의 進路」, 新韓綜合研究所, 1991, P.40.

39) Nicol, Devidson, Regionalism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ew York; Pergamon Pr., 1981), pp. 49~91.

를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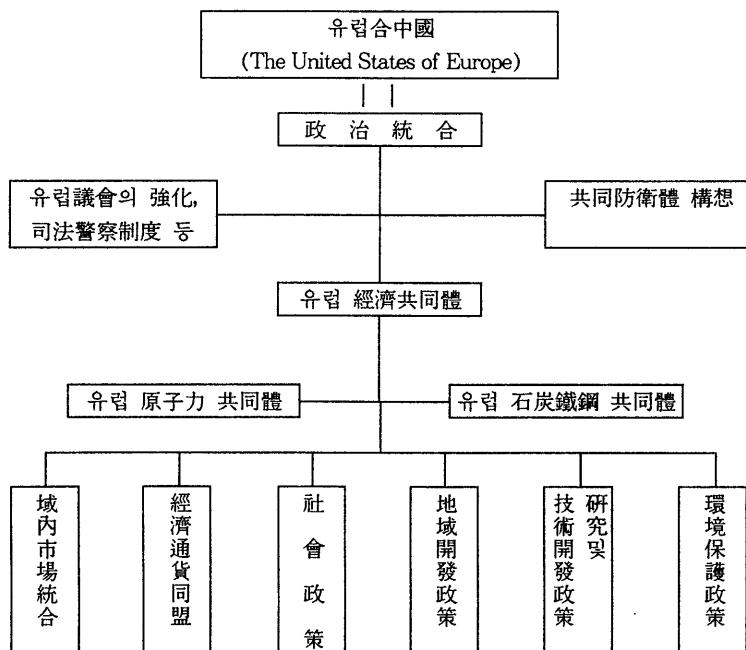
그중 東南亞의 ASEAN과 中南美의 LAIA는 개도국 통합의 대표적인 것으로 LAIA의 경우 25개의 工業補完協定(Industrial Complementation Agreement)의 체결에 의해 몇 개의 特定工業部門의 工業發展 計劃을 도모하고 있고, ASEAN의 경우 특혜무역협정에 의한 特혜관세의 교환 외에 工業計劃(ASEAN Industrial Project; AIP)이나 工業補完計劃(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 AIC)에 의한 협력으로 특정공업에 특화생산함으로서 이들 모두 역내 회원국 사이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역내의 자원과 시장을 공동으로 활용,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역내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⁴⁰⁾

개도국권의 종합발전이 부진한 실정인데 이는 국별로 경제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또 각국간 대외경제정책의 차이가 심하다는데 이유가 있다.⁴¹⁾

4. 期待效果 및 展望

1) 유럽經濟圈

〈圖-1〉 EC統合의 基本構想



資料：劉承弼，前揭論文，p.51。

40) PBEC韓國委員會 外, 「太平洋 經濟協力과 ASEAN」, 全經聯, 1987, p.40.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1987년의 ‘歐洲統合法’이 과거 1957년 로마조약의 성격과 크게 다른 점은 經濟・通貨同盟, 政治・外交 分野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新說 함으로써 EC회원국이 장차 政治・經濟統合을 통해 〈圖-1〉과 같이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현재 政治・經濟 統合을 위한 2개 정부간 회의가 출범되어 장차 EC統合의 핵심이 될 經濟・通貨同盟(EMU :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政治統合(EPU : European Political Union)에 관련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역내시장 통합을 통한 EC經濟圈의 형성은 동・서독의 통합, EC와 EFTA와의 통합, 동구의 개혁 등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당초 12개 회원국의 共同市場形成에서 보다 지리적으로 확장된 汎유럽經濟圈으로 범위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統一獨逸의 탄생으로 공업규격과 환경보호를 제외한 법규가 EC에 적용중이며 향후 2-3년 내에 EC의 모든 법규 및 원칙들이 적용될 예정이고, ②東歐諸國은 개별국가의 독자적 행동을 통하여 市場經濟로의 轉換과 自國 經濟發展 및 資源確保를 위해 EC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데다⁴²⁾ 최근 폴란드・헝가리・체코를 準會員國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③ 1985년 이후 本格化된 EC統合은 EC結成때와는 달리 미국과는 무관하게 EC자체에 의해 추진되며⁴³⁾, ④1984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EC 12개국과 EFTA 7개국 간의 유럽經濟地域(EEA : European Economic Area)協商이 91년 10월 그 基本原則이 타결되어 EEA를 창설함으로 이러한 EC經濟圈의 확대는 향후 東歐圈까지 포함하는 汎유럽經濟圈 형성의 중간단계까지 접근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EC統合은 장기적으로 볼 때 獨逸經濟圈으로 융화 정착되고 EEA결성을 통한 中間段階의 상태에서 EC-EFTA간 경제관계를 모델로한 EC-東歐間 協力關係로 발전되어 결국 EEA로 포괄함으로서 EC를 同心圓으로 한 汎유럽經濟圈이 형성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2) 北美經濟圈

美・캐나다間 自由貿易協定이 1989년부터 발효된데 이어 1990년 들어 미・멕시코간의 自

42) 條田雄次郎, 歐洲同盟の家 - 東西 ヨーロッパの統合と新世界の誕生, (東京: 德門書店, 1989), pp.289-293.

43) Lawrence Kranse, Trade Policy in the 1990: Good bye B:Polarity, Hello Regions, The World Today, Vol.46 No.5, (May 1990), pp.83-84.

產業研究

由貿易協定締結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캐나다까지도 동협상에 참여함으로서 90년대 전반중에는 美國,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 北美市場經濟圈이 형성될 전망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간의⁴⁴⁾ 국민소득 격차와 멕시코 국내의 계층간 소득격차,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협상의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麻藥輸送 및 移民問題 解決, 市場接近 容易, 멕시코의 物價安定, 外國資本과 技術導入, 改革政策 및 對外開放政策推進을 통한 經濟復興 目的이 교환되고, 캐나다도 世界經濟의 블록화 추세에 따른 政策的 對應, 美·캐나다 FTA에서 얻는 利益의 保護, 國際協商에서의 援助勢力 확보라는 이익을 노려 마침내 1991년 2월 미·캐나다·멕시코 등 3國間 FTA가 締結됐고, 이어 5월에는 미국의회에서 快速處理協商權(Fast Track)이 통과됐으며, 北美블록화는 美國의 주도하에 加速化될 전망이며, 따라서 北美 自由貿易權 形成可能性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表-2〉 北美市場의 經濟協力

	人 口 (百萬名)	G D P		1 人當 GDP(US \$)	年平均 增加率 (%, '81-89)
		年平均 增加率 (%, '81-89)	(億, US \$)		
미국	249.4	1.0	51,984	7.1	20,843
캐나다	26.3	0.9	5,478	7.8	20,867
멕시코	84.5	2.1	2,007	-2.2	2,375
합 계	360.2	1.3	59,469	6.7	44,085
E E C	326.2	0.3	48,297	8.8	14,824

향후 미·멕시코 및 北美經濟圈의 FTA는 기본적으로 미·캐나다 FTA가 모델이 될 것이고, 서비스, 투자 등의 非交易財分野까지 포함한 완전자유화 보다는 우선 공산품 중심의 자유화,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미·캐나다·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이 형성될 경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美市場은 1989년 기준으로 총 GDP 규모가 約6兆 달러, 총인구가 3億6千萬名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미 3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보장되는 하나의 역내시장으로 통합된 후

44) 洪起穆, 前揭書, 1991, p.62.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그러한 지역범위를 중남미 지역까지 포함하는 서반구 전체로 넓히려는 구상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90년 6월 중남미 국가의 외채를 경감하고 민주정부와 市場經濟體制로의 개혁을 지원한다는 등의 대중남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西半球 自由貿易地帶(Western hemisphere Free Trade Area)에 참가하도록 요청함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킨 바 있다.⁴⁵⁾

3) 開途國圈

開途國券을 代表하는 中南美는 LAIA를 비롯한 ANCOM, CACM, CARICOM 등에 대한 그 동안의 統合成果는 加盟國間의 立場差異, 政治的 不安定, 先進國과의 經濟協力重視 등의 이유로 結成初期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졌을 뿐 그 후 80년대 중반까지는,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극히 미약하였고 두드러진 활동도 전개되지 못하였다.⁴⁶⁾ 그러나 1990년에 이르러 美國・캐나다 自由貿易協定을 확대한 북미 自由貿易地帶 형성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계기로 地域블록化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국 共同市場(Mercosur: Mercado Comun del Cono Sur)形成은 가장 뒤늦게 제안된 經濟統合이긴 하지만 1995년 共同市場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성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4국 共同市場은 中南美에서 經濟的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어서 共同市場의 經濟力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이 共同市場은 역내의 모든 국가에 개방하고 있어 향후 共同市場에 참여하는 국가가 점증할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비중은 매우 커 南美共同市場(Mercosur)은 실질적으로 추진된 시기가 1990년인데 오는 1995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현시점에서 때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Mercosur는 미・멕시코의 自由貿易協定 추진과 같은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일대전환을 주게 될 北美共同市場과 南美共同市場이 함께 형성될 경우 중남미에서의 통합효과는 내・외부적으로 크게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45) 金南斗, 「美國通商政策의 中期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p.98.

46) Onwka, Ralphi : Se3say, Amadu, The Future of Regionalism in Africa, (London Macmillan, 1985), pp. 254-258.

產業研究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는 경제통합의 진전이 미진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나 아시아의 경우는 ASEAN을 중심으로 역내협력이 발전되어가고 있다. 즉 1967년 ASEAN이 창설된 초창기에는 ASEAN 제국이 주로 정치·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협력하였다. 그러나 1977년 쿠알라룸프로 정상회담에서 역내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어 무역·산업 등 다각적으로 경제협력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1987년 12월에 개최된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ASEAN이 장기적으로 EC와 같은 共同市場形態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어 앞으로 域內經濟協力은 世界經濟의 블록화에 발맞추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⁴⁷⁾

III. 結論

전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오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 약화와 EC 및 일본경제의 부상 등으로 다극화되고 국가간 이해관계도 다양화됨에 따라 인근국가간에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경제블록화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주의화 경향을 권역별로 보면 EC중심권은 시장확대를 위한 차별성, 폐쇄성, 방어성, 경제정치 지향의 유럽요새화를, 미국중심권은 국제위상회복을 위한 개방성, 공격성, Club주의적 범민주화를, 일본중심권은 역내 분업구축에 따른 실리추구를, 개도국권은 역내 공업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國際經濟關係論에 입각한 지역주의화는 국가와 국가간 또는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반응(작용)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역반응(반작용) 관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표출된다. 예컨데 미국의 주도력에 의한 IMF-GATT체제의 출범(작용)은 EC의 생성(반작용)으로 표출되었고,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작용)은 EC의 단일시장 추진(반작용)으로, EC의 단일시장 추진(작용)은 미국의 FTA추진(반작용)으로, 이는 다시 일본의 亞·太平洋 經濟圈構想(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가 「무차별성」 원칙의 局地的인 적용과, 역외국들에 대한 차별 및 배타성이란 고유의 이념만을 추구한다면 세계경제의 블럭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축

47) 裴光宣 外, 「ASEAN諸國의 投資環境과 우리의 進出戰略」, 產業研究院, 1990.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소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가 국제경제질서의 재구축의 한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주의의 고유이념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국제주의(globalism)의 출발점으로서의 지역주의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는 역내외의 차별 및 배타성이 아닌 개방성의 이념에 추구되어야만 할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經濟企劃院, 「EC市場統合의 實態」,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1988.10.

金南斗, 「美國 通商政策의 中期的 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金成勳, 「東北亞地域의 經濟 및 技術協力 展望」, 經濟論叢 第29卷 第2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90.

金世源, 「世界經濟의 BLOC化 推移와 國際經濟秩序」, 全經聯, 1988.5.

徐青錫, “太平洋國家의 貿易構造變化와 經濟協力의 方向”, 「社會科學研究」 第14集, 慶熙大社會科學研究所, 1988.12.

新韓綜合研究所, 「東아시아 經濟區域化 論議와 韓國의 選擇」, SRI 研究資料 91-2, 1991.9.

俞城在, 金經武, 「世界經濟의 블록화와 韓國經濟의 進路」, 全經聯, 1989.

外務部, 「韓國의 對아세안 經濟外交構想」, 1985.4.

第一銀行, 「世界經濟의 블록화와 우리의 對應」, 經濟動向, 1991.2.

韓國銀行, 「美國의 自由貿易協定 推進現況과 向後展望」, 業務參考資料, 1991.

_____, 「EC統合과 우리나라의 對應方向」, 調查研究資料, 1991.

韓國投資諮詢, 「EC經濟統合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1988. 12.

産業研究

洪文信, 「아시아 太平洋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84.

〈東洋文献〉

渡部福太郎, 1990年 - 構造變動進む國際經濟, 世界經濟評論, 1990.1.

日本開發銀行, 緊密化ある環太平洋地域の經濟ニンケーシ, 調査, 1990.2.

日本貿易振興會, アシア太平洋協力 - 協力ハの新たな展望, シエトロセン一, 1989.

_____ , 世界貿易の新たな展望を深る, 1990. 3.

大來佐武郎, 東アシア經濟クルーフ構想と日本, 東洋經濟, 1991.3.

徐熙彥, 東アシアNIEsの膨脹と東アシア經濟圏の生成, 世界經濟評論, 1989. 4-5.

_____ , 環日本海經濟圏はとこまで現實か, ESP, 1991.7.

國際經濟學會, 自由貿易と地域主義: 多角的 自由 無差別 原則の再検討, 東京, 1977.

〈海外文献〉

Bergsten, Fred C. and Lawrence B. Krause, eds., 「World Politi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Blank, Stepen, 「Economic Impact of the Agreement, United States / Canada Free Trade Agreement: The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 American Bar Association National Institute, Washington D. C., Jan 28-29, 1988.

Box, G. and G. Jenkins, 「Time Series Analysis: Fore Casting and Control, Revised edition」, San Fransisco; Holden dag, 1976.

Cecchini. Paolo, 「The European Chakenge 1992: The Benefits of a Single Market」, Wid Wood House, 1988.

Cline, Wiham R. and Enrique Delgado, eds.,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merica」,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8.

地域主義化 傾向의 圈域別 實態比較

- Clout, Hugh D., 「The Regional problem in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Diamond Walter H. and Dorothy B., 「Tax-Free Trade Zones of the World」, Matthew Bencher, 1988.
- Eric Stone, 「Strategies for Post-GATT Profit」, Asian Business, Feb, 1991.
- Feld, Werner J. ed., 「Western Europe's Global Reach: Regional Cooperation and World Wide Aspirations」, Pergamon, 1980.
- Feld, Werner J. and Gavin Boyd. ed., 「North America, The Middle East and Developing Countries」, Pergamon, 1980.
- haseyama, T. et. al., 「Tokyo Conference on Global Adjustment and the Future of Asian-Pacific Economy」, APDC and IDE, May 11–13, 1988.
- Hirsch, Moshe Goldberg S. and Sassoon, D. M., 「An Analysis of the American-Israel Free Trade Area Agreement」, The World Economy, June 1988.
- Mendes A. T., Marques, 「Economic Integration and Growth in Europe」, Croom-Helm, 1987.
- Mortimer, Robert A., 「The third World Coal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aeger, 1980.
- Negel Holloway, 「Asia-Pacific trade bloc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5, July 1991.

41) 上揭書, pp.163–168.

